

날짜: 5785 년, 여섯째 달 17 일 (9 월 10 일, 2025)

토라 문: 키 타보

주제: 닫힌 문을 열다

신명기 28 장 1-2 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여호와 네 권능자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주는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면 여호와 네 권능자께서 너를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높이실 것이요 네가 그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라.”

잠언 8 장 34 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말을 듣고 날마다 내 문에 속히 이르러, 내 집 문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셈 미슈무엘은 이를 비유하여 미드라쉬를 설명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말씀을 이해 합니다: 인간의 영혼에는 두 가지 주요 “입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문”으로서 영생인 여호와와 토라에 대한 지식을 받도록 통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심장의 문”으로서 여호와와 감정의 연대가 이루도록 통하는 문입니다. 이 입구들은 마치 거룩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 막힌 문처럼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문이 닫힌 경우를 셈 미슈무엘께서 설명하십니다: (1) 마음으로 통하는 문은 오만함으로 닫힙니다. 이는 자신의 생각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사람은 생명과 복인 여호와와 토라 (법, 가르침)의 지혜를 거부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들어도 못들은 척하며 무시할 수 있습니다. (2) 심장으로 통하는 감성의 문은 물질적 쾌락에 대한 과도한 욕망으로 닫힙니다. 이러한 갈망은 종종 개인적으로 부족하다는 결핍의 영으로써, 거룩하신 영적인 처소에 도달할 수 없다는 자아의 느낌에서 비롯되며, 그로인하여 더 낮은 목표를 정하고 그에 안주하게 됩니다.

“오만함의 영”과 낮은 자존감, “열등의 영”은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미드라쉬는 둘 다 “문/입구”(תַּנְיָה)으로 지칭합니다. 히브리어 어근인 “달”(לָד)은 문맥에 따라 특별히 “높여지다”와 “낮춰지다”를 모두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38 장 14 절에서 이 단어는 “앙망하다”로 쓰입니다. 히브리어: דַּלְלוּ עֵינַי לְמַרְוֵם (dal-lu ei-nai la-marrom) “내 눈은 높이 “들려” 있다.” 이 뜻은 고상함의 의미로 쓰임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시편 116 장 6 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에서는 “내려놓다”를 의미합니다. דַּלְלוּתִי, וְלִי יִהְיֶה שִׁיעוּר (dal-lo-ti, ve-li ye-ho-shi-a), “비천함”의 의미로 쓰임입니다.

이러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셈 미슈무엘은 잠언에 여호와 엘로힘의 문 앞에서 기다리는 것에 대한 구절을 해석합니다. 그는 이 구절이 영적으로 막힌 사람, 즉 마음과 심장이 닫힌 사람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런 상태에서 토라를 공부하거나 기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잠언의 구절은 심장에 감화를 알지 못하거나, 가르침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공부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탈무드(사바트 63a)는 이에 보충 설명을 합니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먼저 반복해서 공부하고, 그 후에 더 깊은 의미를 찾아야 한다." 이는 마음이 닫혀 있더라도 여전히 거룩한 행실을 쌓도록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꾸준한 집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토라의 거룩한 말씀이 가랑비에 나뭇잎들이 젖어 들듯 점차로 심령 깊은 속에 자리를 잡고 지속력을 더하며 흔들림 없이 굳건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문"이 활짝 열릴 때, 그 모든 거룩함이 심령에 흘러 들어와 토라를 주신 여호와와 그의 선하신 의도에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풍성한 결실을 단번에 이루도록 마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무엇인가에 막혔다고 느끼고, 그에 벗어나서 광대한 영적 성숙과 성장을 원한다면, 한 번에 하나씩 막힌 문의 각 부분들을 열기 위한 단계를 밟아갈 수 있습니다.

우선은 마음(전두엽)에서 시작합니다. 마음(생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오만입니다. 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토라와 토라의 학자들을 존중하며, 자신의 생각을 그들의 지혜에 기꺼이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마음이 "진정한 이해/분별의 능"과 연합될 수 있도록 순탄히 그 막힌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런 후에는, 다음 순서로 심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심장의 문이 열리면 그 후에는, 그 심장을 막고 있는 욕심과 방해의 영들을 분별하여 다룰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육신 안에서 운행하시는 거룩하신 영혼의 존재 가치를 기억하고, 내면에서 원하는 기대치를 높이고, 진심 어린 간구를 통해 송고하신 영적 경지에 도달하도록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포함됩니다.

두 문, 즉 최상의 산지식인 여호와와 토라의 배움을 위한 "마음" 문과, 여호와와 감동과 연합하는 "심장" 문의 열린 후에는, 항상 경계를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열린 문이 항상 타호르 (맑다)하게 유지를 위하여 계속 힘을 모아 영적 삶의 이 두 가지 핵심이 계속 성장하도록 주목합니다.

샬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며...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신 5:32-33)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용감하게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수 1:7-9)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수 23:6)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엡 6:14)